국감 증인채택 돌입…與野 혈투 예고

여소야대 3당체제 첫 국감…대선 앞 주도권 잡기 싸움

우병우·신동빈 채택 최대 쟁점…사상 최대 규모될 듯

제20대 국회 첫 정기국회의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의 '증인 전쟁'이 시작됐다.

5일 국회 국방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각각 178명과 278명의 증인을 채택했다. 6일에는 외교통일·산업통상자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7일에는 환경노동위원회의 국감 증인채택이 예정돼 있다.

이번 국감은 여소야대의 3당 체제로 처음 치러진다는 점에서 19대 국회보다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한층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번 국감은 712개 기관, 4173명의 증인을 불렀던 지난해 국감보다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대 쟁점은 청와대를 피감기관으로 하는 운영위원회 국감이다. 여야는 아직 소집 일정을 잡지 못한 상태다. 각종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우병우 민정수석,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 증인 채택이 무산된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에 대한 야당의 증인 채택 요구가 예상된다.

전례에 비춰 안 수석은 증인으로 출석, 대우조선해양 지원을 결정한 이른바 '서별관 회의'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문 세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자진사퇴 요구에 직면한 우 수석 역시 이번에는 증인으로 불려 나올 가능성이 있다. 새누리당에서도 우 수석의 증인 채택이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점차 우세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관례로 이어진 민정수석의 불출석을 더 이상 양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우 수석 관련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등이 법제사법위원회 국감 등에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무위원회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또 증인으로 채택될 것인지 관심사다. 신 회장은 지난해 국감에서 그룹의 경영권 상속 분쟁과 관련해 10대 그룹 총수 가운데 처음으로 국감에 불려 나왔다. 올해는 그룹 차원의 비리 사건에 휘말려 증인 채택 '1순위'로 꼽힌다.

새누리당은 저인망식의 증인 채택이나 의원의 고압적인 태도 등 해마다 반복되는 구태를 이번 국감에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권은 이번 국감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난맥상을 가감 없이 드러내겠다며 벼르고 있다. 실제로 야당은 우 수석의 운영위 출석을 기정사실로 여기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철성 경찰청장 등을 국감장에서 몰아붙인다는 방침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여야의 입장이 충돌하며 국감이 정쟁의 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증인 선택은 '불러놓고 보자'는 식에서 벗어나 보다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힘 모읍시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운데)가 5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왼쪽),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오른쪽)와 야당 반대에도 임명이 강행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대처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野 3당 '김재수 해임' 공조

해임안 공동 발의·'멱살 논란' 한선교 윤리위 제소키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 원내대표는 5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반면,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은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더민주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야3당은 합의안에서 김 장관의 해임건의안 제출 외에도 서별관 청문회의 진행을 위해 청문회 일정 연기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회의장 경호원 멱살을 잡아 논란이 된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국회 인사청문회 부적격 판정 후보자의 임명 강행 등 인사 청문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5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자신의 모교인 경북대 동문회 사이트에 "청문회 과정에서 온갖 모함과 음해, 정치적 공격이 있었다"며 "시골 출신에 지방학교를 나온 이른바 '흙수저'라고 무시한 것이 분명하다"라고 글을 올린데 대해 일제히 비판했다. /임동욱기자 tuim@

송기석, 오늘 문화전당 활성화 정책 토론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당 송기석(광주 서갑) 의원은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세미나실에서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운영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건설비 7000억원, 매년 운영비 800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역대 최대 문화시설인데도 콘텐츠·조직·인력 운용의 문제를 안고 있는 아시아문화전당의 다양한 문화 경영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이무용 교수가 토론 발제자로 나서 차별화된 문화전당의 장소 가치를 높이는 데 필요한 장기 비전 및 정체성 정립, 지속적인 관리 등 세부 전략과제들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어 방선규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장 직무대리를 비롯해 염방열 광주시 문화관광체육실장, 문창현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언론 관계자 등의 지정토론도 이어진다.

송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문화전당이 세계적 복합문화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

의원 불체포특권 포기·세비 인하

배지 신분증 대체 등 국회특권내려놓기委 잠정안 마련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위원장 신인령 전 이화여대 총장)'는 5일 불체포특권 포기와 외부위원회 세비 결정, 배지 폐지 등의 잠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우선 불체포특권과 관련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72시간이 지나더라도 폐기하지 않고 처리를 의무화하면서 필요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조사 후 본회의 보고·표결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또 국회의원 세비 결정은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에 위임하고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등의 보수 체계도 개편할 계획이다. 국회의원의 상징이었던 '배지'는 폐지하고 신분증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20대 국회에서 문제가 됐던 친인척(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보좌직원 채용은 전면 금지하고 이와 관련한 윤리강령을 제정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청원인의 진술권 보장 등 국민의 청원권 강화 ▲국회의원의 군 골프장 이용 시 회원 대우 폐지 ▲출판기념회에서의 금품 모금 제한 등 운영 개선 ▲의정 보고회 및 정치후원금 관련 개선 등도 잠정안에 포함됐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각 교섭단체가 추천한 외부인사 15명으로 구성된 추진위는 지난 7월18일 출범 이후 2차례 전체회의와 7차례 분과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런 잠정안을 마련했다. 활동기한은 다음 달 17일까지 총 90일이다.

추진위는 이같은 잠정안에 대해 오는 7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공청회에는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과 박근용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삼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사법팀장 및 배재정·이두아 전 의원 등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軍 '모병제 도입' 첫 토론회

월 200만원에 공무원 대우…남경필·김두관 대선 이슈화

국회에서 모병제 도입을 공론화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새누리당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등 여야 정치인을 포함해 각계인사 70여 명이 참여하는 '모병제희망모임'이 5일 국회에서 첫 토론회를 열었다.

남 지사는 "모병제는 안보, 공정함, 일자리란 3가지 시대정신을 모두 담고 있다"며 "2025년이면 연 38만명 정도의 아이만 태어난다. 그들로 63만 군대를 이끌 수 없다. 작지만 강한 군대, 30만명 정도를 유지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원자에게 월 200만원, 9급 공무원 상당의 대우를 한다고 하면 현재보다 약 3조9000억원의 예산이 더 필요한데 우리가 합의만 하면 얼마든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사회를 본 새누리당 정두언 전 의원은 남 지사와 김 의원에게 "대선공약으로 모병제를 하겠냐"고 물었고 남 지사는 "네"라고 답했다.

두 번째 토론자였던 김 의원도 "모병제 도입은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군대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며 "모병제가 되면 병력운영비 절감분으로 방위력 개선비에 추가투입할 수 있고 12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 등 모병제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그런 주장을 펴는 것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재명 성남시장 5·18 묘지 참배

광주 방문…천주교 광주대교구 초청 강연·유족 면담

야권 내 잠룡으로 분류되는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이 5일 광주를 찾았다.

이 시장의 광주방문은 1박 2일 일정으로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세계인권도시포럼에 참석한 지난 7월 20일 이후 47일 만이다.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이 이날 오후 광주트라우마센터를 찾아 시설을 둘러보고 5·18 유족 등 센터 상담 프로그램 참여자와 면담했다.

이 시장은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초청 강연에 참석하기 위해 광주를 찾았다. 광주트라우마센터 방문은 5·18 관련 주요 시설을 둘러보려는 이 시장의 요구로 이뤄졌다. 센터 방문을 마친 이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으로 이동해 지역 당직자와 간담회를 한다. 이어 오후 7시 30분 광주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지방자치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강연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자금대출 대방출

자영업자를 위한 햇살론이 희망을 드립니다

대 상 자 :	-3개월이상 영업중인 사업자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자영업자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3,0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대출한도 :	최대 2,000만원 (창업자금 5,000만원)
대출금리 :	4.7% ~ 4.9%
대출기간 :	5년(1년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정책자금 1,000억원 한도내 선착순 마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주유소사업소 720-2800

서양새마을금고